

사도행전 21:16~26.

새로운 개종자들이 복음을 배울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인내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20~25분)
반원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 주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

-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한 한두 나라들을 가리킨다.)
-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가? (가장 최근의 리아호나 5 월호의 연례 통계 보고서를 참조한다.)
- 이 새로운 개종자들 중 일부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떠한가?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교회에 가입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새로운 개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개념, 교리, 믿음, 예배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과 예배 방법이 새로운 회원들이 적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6~20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 바울은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갔는가?
-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 회원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21~26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 그들의 의견은 오늘날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의 의견과 어떻게 비슷한가?
- 우리는 바울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 반원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여러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대하거나 그것을 존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권리에 대해 관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의 바른 태도를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고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 우리의 삶에 더 큰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666~667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의 와드, 스테이크, 또는 학교에서 최근에 교회에 가입했거나 활동화 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내심과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가?

대답들을 칠판에 열거하고, 새로운 개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바울의 모범을 따르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2009년 9월 9일, 수원 스테이크 신갈와드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